



# 새로운 조경수 49

## - 피라칸사스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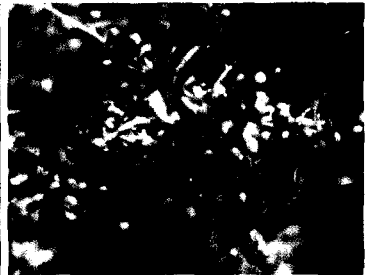
김 사 일  
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

### 종류와 생육특성

속명의 피라칸사(Pyraecantha)

는 희랍어의 불(Pyra)과 가시(Acantha)라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열매가 붉고 가지에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. 남부유럽과 아시아에 6~7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자생종이 없고 중국, 유럽 등지에서 3종이 도입되어 조경수로 재배, 식재하고 있다. 내염력(耐鹽力)

은 강하고 내공해력(耐公害力), 내건력(耐乾力), 내음력(耐陰力)은 보통이며 내한력(耐寒力)은 약한 편이어서 식재지역의 제한을 받게 된다. 충청남도 이남지역의 평지에서는 식재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서는 북풍이 막힌 양지쪽에서만 식재가 가능하다. 식재적지



1. 피라칸사스의 열매와 잎
2. 피라칸사스의 꽃과 화서
3. 노란 피라칸사스(원예용으로 개발된 품종)
4. 피라칸사스의 결실 전경

〈표1〉 피라칸사스의 종류

국 명	학 명	일본 명	영 명
피라칸사스	<i>Pyracantha angustifolia</i> SCHNEID	타치바나모ドキ	Narrowleaf Firethorn
넓은잎피라칸사스	<i>Pyracantha coccinea</i> BORKH	トキワサンザシ	Firethorn
히말라야피라칸스	<i>Pyracantha crenulata</i> ROEM	ヒマ라ヤピラカンサ	Himalavan Firethorn

〈표 2〉 수종별 특성

수종별	가지와 잎	꽃과 열매	분포지역	생육입지
피라칸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록활엽관목으로 수고 3~4m정도 자라며 가지가 조밀(稠密)하게 착생함.</li> <li>· 가지끝이 변하여 가시가 되고 어린 가지에는 황갈색의 털이 있음.</li> <li>· 잎은 호생(互生) 또는 총생(叢生)하고 좁고 긴타원형 및 도난형(倒卵形)임.</li> <li>· 잎끝은 원형 또는 둔두(鈍頭)</li> <li>· 잎의 길이 3~4.5cm, 나비 0.4~1.5cm</li> <li>· 잎가장자리에 보통톱니가 없지만 큰 잎에는 가는톱니가 있음.</li> <li>· 잎의 뒷면과 잎자루에 회색털이 밀생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꽃은 5월중하순에 백색으로 피.</li> <li>· 화서는 산방화서(繖房花序)로 한개의 화서에 많은 꽃(5~10개)이 피.</li> <li>· 꽃잎은 5개로 깊게 갈라지며 꽃의 직경은 1cm 정도</li> <li>· 열매는 처음에 솜털로 덮혀있다가 열매가 익으면서 없어짐.</li> <li>· 열매는 편구형(扁球形)으로 직경 8mm정도임.</li> <li>· 열매는 10월에 오렌지색으로 익으며 겨울내내 달려 있음.</li> <li>· 열매는 핵과로 한개의 열매에 5개의 흑색종자가 들어 있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국 운남성(雲南省)윈산</li> <li>·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 식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비옥하고 토양수분이 적합한 사질양토로 햇볕이 잘드는 양지</li> </ul>
넓은잎 피라칸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록활엽관목으로 수고 7m정도 자라며 가지가 조밀하지 않고 아래로 처짐.</li> <li>· 가지끝이 변하여 가시가 되고 어린 가지 및 잎자루에 회색털이 있음.</li> <li>· 잎은 호생 또는 총생하고 장타원형 및 도난형임.</li> <li>· 잎끝은 원형 또는 둔두</li> <li>· 잎의 길이 3~4.5cm, 나비 0.8~2.5cm</li> <li>· 잎가장자리에 가는톱니가 있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꽃은 5월중하순에 백색으로 피</li> <li>· 화서는 산방화서(繖房花序)로 한 개의 화서에 많은 꽃이 피.</li> <li>· 꽃의 직경은 1cm정도로 꽃잎은 5개로 깊게 갈라짐.</li> <li>· 열매는 구형(球形)으로 직경 6mm 정도임.</li> <li>· 열매는 10월에 주홍색으로 익음.</li> <li>· 열매는 핵과(核果)로 한개의 열매에 5개의 흑색종자가 들어 있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남부유럽 및 아시아에 분포</li> <li>·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 식재</li> </ul>	
히말라야 피라칸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잎자루는 홍색을 띠고 길이 0.6~0.8mm정도임.</li> <li>· 잎은 장타원형 및 피침형.</li> <li>· 잎의 길이는 2~6.5cm, 나비 1.0~1.6cm</li> <li>· 잎가장자리에 가는톱니가 있음.</li> <li>· 잎뒷면에 털이 없음.</li> <li>· 기타 특징은 피라칸사스와 같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열매가 구형(球形)이고 피라칸사스보다 더 붉음.</li> <li>· 열매가 아주 조밀(稠密)하게 달림.</li> <li>· 기타 특징은 피라칸사스와 같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히말라야 지방 윈산</li> <li>·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 식재</li> </ul>	



▲넓은 잎 피라칸사스의 결실 전경



▲넓은 잎 피라칸사스의 열매와 잎

는 비옥하고 토양수분이 적합한 사질양토(砂質壤土)가 좋다.

###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

우리나라에서는 피라칸사스의 수종별 구분없이 모두 피라칸사스로 통용되고 있고 피라칸사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관상 및 조경용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는 대단히 높다.

백색의 꽃이 나무전체를 덮고 있는 경관(景觀)도 관상가치(觀賞價値)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익은 열매의 관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. 오렌지색 또는 주홍색(朱紅色)의 작은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데 뭉쳐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모양은 아름답고 영롱(玲瓏)하여 한참동안 응시(凝視)하고 있으면 열매 덩어리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끼게 하고 또

열매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장기가 달려 있어 관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좋다. 그리고 전지전정(剪枝剪定)으로 수형(樹形)을 자유자재(自由自在)로 다듬을 수 있어 정원수, 생울타리, 분재(盆栽)용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다. 특히 피라칸사스와 히말라야 피라칸사스는 가지가 조밀(稠密)하게 착생하기 때문에 생울타리 조성용으로 적합하고 넓은 잎 피라칸사스는 가지가 드물고 줄기가 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울타리 조성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관상용 조경수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.

### 번식 및 양묘방법

피라칸사스의 번식은 파종과 삽목에 의하며 종자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(實生苗養成)은 10월에 잘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약간 젖은 모래와 뒤섞어서

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(露天埋藏)하였다. 이듬해 봄(4월)에 끄집어내어 채로쳐서 모래를 제거한다음 손으로 비벼어 탈종(脫種)한 후  $m^2$ 당 0.03l 정도 파종하고 그 위에 5mm 정도 두께로 복토를 한다. 파종 20일 후에 발아를 시작하고 발아 후에는 건묘(建苗)생산을 위하여 비배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9월에  $15cm \times 45cm$  간격으로 이식한다.

삼목묘양성을 위한 삼목시는 춘기(4월) 삽목을 하여도 되고 하기(7월) 삽목을 하여도 되며 발근이 비교적 잘되기 때문에 활착율(活着率)이 높은 편이지만 발근이 될 때까지 수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특히 삽수(插穗)는 열매가 맺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(徒長枝)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삽수의 길이는 10cm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. **조경수**